

보리쌀 42년만에 최대폭 ↑, 쌀값도 들썩…심상찮은 곡물 가격

4월 보리쌀 가격 43.7% 상승…1983년 6월 이후 최대폭
이상기후로 보리 생산량 급감…“올해 수확은 이상 없어”
쌀값 4.5% ↑, 9개월만에 반등…“작년 봄 할인행사 영향”

가공식품, 축산물, 수산물, 외식 등 먹거리와 관련된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 4월 들어서는 쌀과 보리쌀 등 주요 곡물 가격도 줄줄이 오르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켜졌다.

곡물은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식품이라는 점에서 가계 생활과 관련이 매우 높다. 최근 이상기후와 재배면적 감축으로 쌀을 비롯한 주요 곡물의 생산량과 가격 변동폭이 커지면서, 우리나라도 쌀값 폭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일본과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5일 통계청의 '4월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지난달 보리쌀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43.7%나 급등했다. 지난 1983년 6월(44.6%) 이후 42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이상기후가 보리쌀 가격 급등의 원인이다. 보리쌀은 매년 겨울 파종해서 다음해 5~6월 수확하는데, 이상기후로 인해 2023년 심은 보리의 생산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보리쌀 가격은 지난해 7월(13.6%)부터 9개월간 두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상승폭은 점점 커져 올해 들어서는 1월 37.0%, 2월 40.4%, 3월 41.8%, 4월 43.7%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23년에 심은 보리가 파종 때와 심을 때, 수확할 때 이상기후라고 할 정도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생육이 안 좋았다”며 “그래서 생산량이 부족해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024년도 말에 심은 보리는 현재까지 생육이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수확기에 비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없다면 전년 대비 생산량이 증가할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4월에는 보리쌀 뿐만 아니라 주요 곡물 가격이 대부분 올랐다.

쌀은 전년 동월 대비 4.5% 상승했고, 현미(14.9%), 찰쌀(26.8%), 콩(4.5%), 혼식곡(8.5%)도 가격이 올랐다.

특히 쌀 가격은 지난해 8월(-1.5%)부터 8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플러스 전환했다.

지난해 10월 -8.7%에 달했던 하락률은 올해 들어 1월 -5.9%, 2월 -3.3%, 3월 -0.3%으로 점차 축소되더니 4월(4.5%)에는 상승폭이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크게 상회했다.

옆 나라 일본이 최근 쌀 가격 급등 사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쌀 재배면적을 감축 중인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다만 정부는 이번 가격 상승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작년 3월과 4월 10kg당 5000원 정도 할인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이 낮은 편이었다. 올해 4월에는 그 기저효과 때문에 4월 4.5%가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또 “현미나 찰쌀의 경우 작년보다 생산량이 줄면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쌀이 구조적인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 고과 재배 면적 감축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22년 쌀 가격이 크게 하락한 뒤 안정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최근의 가격 상승은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먹거리 물가가 줄줄이 오르면서 쌀 등 곡물 가격이 가계에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커졌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4월 식품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3.3% 뛰었다. 수산물은 4.8%, 수산물은 6.4%, 가공식품은 4.1%, 외식은 3.2%씩 가격이 올랐다. 곡물 가격은 8.6%나 올라 다른 품목에 비해서도 상승폭이 더 컸다.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곡물은 장바구니 물가 뿐만 아니라 외식비나 급식비, 가공식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가격·수급 불안이 나타나면 일본처럼 유통 물량이 급감할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민생과 밀접한 주요 품목의 수급·가격 변동과 유통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필요시 신속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물가 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농작물 작황 관리 및 축산물 수급상황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 여건을 조성하고, 기상 급변 등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 비축을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영일 기자



전남도, 인도네시아 재생에너지 시장 공략

전남도가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10개 업체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파견, 5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출거점을 확보하고 기술협력 기반도 다졌다고 6일 밝혔다.

전남도와 코트라(KOTRA) 광주전남지원본부가 공동운영한 2025 에너지 특화 인도네시아 시장개척단은 동남아 최대 에너지 전문 전시회인 '인도네시아 국제 태양광 및 광전지 전시회'(Solartech Indonesia 2025)에 참가, 118개 현지 바이어와 172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5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맺었다.

우선, ㈜티엠티가 신축이음관 5만 달러 수출협약에 이어 기술 협력을 논의했고, ㈜비케이에너지는 현지 기업과 기술협력 업무협약(MOU)을 해 공동사업 기반을 확보했다.

㈜유진테크노는 인도네시아 국영전력공사(PLN) 납품망을 통한 케이블 공급 가능성을 열었고, ㈜이엘티는 술라웨시 우타라 지역에서 이동식 전력공급장치(PV-ESS) 실증사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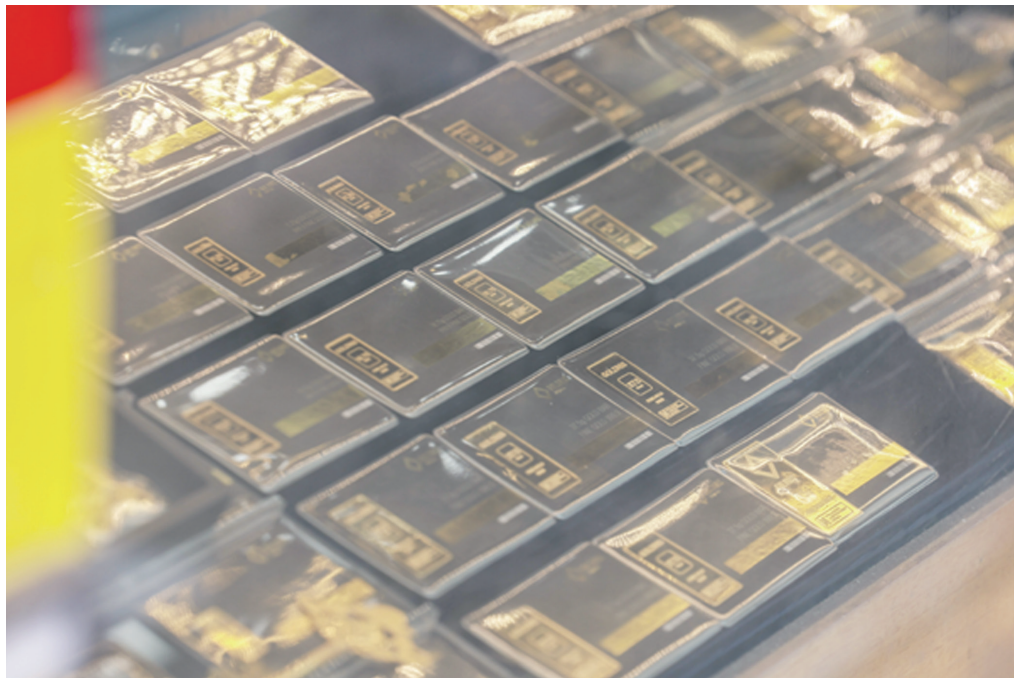
추진 중이다.

또 ㈜터빈크루는 국영건설사 위자야 카르아(WIKA), 엔지니어링사 SMEC로부터 기술 발표 요청을 받았고, ㈜티디엘은 현지 법인을 통해 전기이륜차 배터리팩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엠티에스는 현지 업체와 기술이전과 생산 협의를 진행 중이며, ㈜한국그리드포밍은 국영전력공사와 그리드포밍 인버터 기술시연을 추진하고 있다.

참가기업들은 수상태양광, 스마트폴, 전력케이블, 고속전자기과도모의장치 등 연계 제품·기술을 기반으로 상호협력 가능성도 확인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3%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4.68GW의 태양광발전 용량증가를 추진중이다 2024~2028년 5746MW 규모의 루프탑 태양광 설치도 승인한 만큼 전사회에선 태양광 제조와 투자확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금값 고공행진에 골드뱅크 또 역대 최대

뱅크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1000억원을 넘어섰다. KB국민·신한·우리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골드뱅크 잔액은 1조102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말(1조265억원)과 비교해, 한 달 새 760억원 늘었으며, 1년 전인 지난해 4월 말(6천101억원)의 1.8배 수준이다.

6일 서울 시내 금은방에 금 제품이 진열되어 있다. 금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은행권 골드

“검은 반도체 열풍 주도한다” 목포시, 김 수출액 42.8% ↑

목포시의 김 수출액이 전국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세계시장에서의 ‘검은 반도체’ 열풍을 주도하고 있다.

6일 목포시에 따르면 올 1분기 김 수출액이 3032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2.8% 증가하며, 전국 지자체 중 수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목포시 전체 수출액 3595만 달러의 84%로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수출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해에도 김 수출액 1억3308만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김 수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목포시는 민선 8기 들어 김 가공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 활동에 나서는 등 김산업 육성과 세계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기반 마른김 품질 등급 판별 솔루션 개발 및 실증’ 사업에 선정되는 등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2022년 (재)목포수산물산지원선터를 전국 최초 해양수산부 제1호 김산업

전국 지자체 중 1위…“글로벌 경쟁력 입증”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김 산업 전문화의 길을 열었다. 또 김 가공과 수출 기업을 입주시켜 연구개발과 수출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수산물수출단지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산물수출단지지는 오는 2026년까지 총 1137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4만 6612㎡ 규모의 조성된다. 이 곳에는 김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

하고 수출시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 마른김거래소도 들어선다.

목포시 관계자는 “세계시장에서 목포시 김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이 입증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김을 비롯한 수산물품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

‘전남경제의 대동맥’ 여수산단 회생 신호탄 쏘나

무탄소 연료 기반 NCC 공공기술 개발…“친환경 전환 첫 걸음”

생산라인 중단과 하청업체 줄폐업, 상권 붕괴, 세수 감소 등으로 침체의 늪에 빠진, 국내 석유화학의 심장이자 전남경제의 대동맥, 여수국가산단에 회생의 발판이 잇따라 마련돼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지 관심이 쏠린다.

글로벌 흐름에 맞춘 친환경 대전환과 함께 특별법 제정,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이 부활의 관건이자 우선과제라는 지적이다.

6일 전남도와 여수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내부 심의를 거쳐 여수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최종 확정했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국내 첫 사례다.

조선업 불황이 극에 달했던 지난 2018년 목표와 염암, 해남이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 꼬박 7년 만이다.

이번 지정으로 긴급경영자금, 보조금 우대과 함께 정책금융이 강화되고, 만기연장과 상환 유예, 우대보증도 진행된다. 연구 개발과 경영 자문, 고용 안정에 대해서도 내년 이후 예산 반영이 가능하게 됐다.

지정 기간은 2년으로, 이 기간 여수시는 지방교부세 622억 원을 추가로 배정 받게

됐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3707억 원 규모의 5개 분야, 19개 지원 사업을 발굴해 정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여수경제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3월13일 산업부에 위기지역 신청서를 제출했고, 4월30일엔 고용부에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산업과 고용, 두 트랙으로 ‘여수 살리기’에 나섰고, 지역 사회와 정치권, 노동계가 힘을 더하면서 첫 결실을 맺게 됐다.

이달초엔 산업부의 석유화학 무탄소 연료 기반 남사분해공정(NCC) 공정기술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돼 410억 원을 확보하며 친환경 전환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

앞서 지난해엔 여수산단 수출비중의 80%를 점유한 GS칼텍스 사 산업부의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탄소포집활용(CCU) 메가프로젝트에 여수 GS칼텍스 부지가 선정되면서 친환경산업화에 청신호를 쏘았다.

잇단 회생의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나프타 공급 과잉과 수요 감소, 원자재값 폭등에 따른 3중고 등 전남 석유화학이 직면한

극단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친환경 대전환과 특별법 제정,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도는 특히,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클러스터 구축이 급선무라고 판단, 지난 3월 산업부에 CCUS 클러스터 지정에 대한 정부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조기요청 인하와 세제 혜택, 인프라 확충 등 기업이 요구하는 실질 지원을 특별법에 담아내야 한다는 의견도 적잖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기술개발, 저탄소 설비 전환, 친환경 고·부가 산업 재편 지원 등 장기적이고 실효성있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이 10% 오르다보니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수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24조 원대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도 미래형 산업구조로 도약하는 중대 전환점이자 시험대로 관심을 모으고 있고,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여수산단 플랜트건설 노동자수로 대변되는 고용위기도 타개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동부취재본부